

호남출신 '대권 잠룡' 이낙연, 총선 행보 본격화

오늘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어제 종로구 아파트로 이사
지역구 돌며 바닥민심 청취

호남 출신으로 차기 대권 주자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3일 총선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한다.

2일 이 전 총리 측 인사들에 따르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오는 4월 총선 때 서울 종로구에서 출마하기 위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역구를 순회하며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면 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제한적이거나 선거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전 총리는 선관위 등록과 함께 곧바로 지역구를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인사를 올리는 등 총선 예비후보로서 행보를 시작한다고 측근들은 전했다.

이 전 총리로서는 자신에게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계산이다.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한 이 전 총리는 선대위 체계가 본격 가동되고, 경선을 통해 각 지역구별

로 후보가 확정되면, 전국적인 지원 유세에 나서야 하는 만큼, 이전까지는 되도록 본인 선거운동에 집중하며 종로 바닥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전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고려해 인원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소규모로 지역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앞서 이 전 총리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내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서초구 잠원동에서 종로구 교남동 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선거 사무실 계약도 마무리했다. 선거 사무실은 종로6가에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의원 사무실을 인계 받았다.

사실 이 전 총리는 예비후보 등록 전에도 이미 종로구 관내 재래시장과 자신이 청년시절 살았던 동네 등을 둘러보았으며, 주요 언론사를 방문해 총리 퇴임 인사를 건네는 등 사실상 총선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0학번인 이 전 총리는 종로구 동소문에서 서울대를 다녔다. 이 전 총리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도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을 살펴봤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종로구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탐방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채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무약동 무약공원·명륜동 와룡공원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거쳐-인사동 전시회" 등의 동선을 언급하면서 "종로는 공부할 것이 한없이 많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6년 15대 총선에 통합민주당 후보로 종로구에 출마했다가 3위로 낙선했지만, 1998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는 금빛지를 받았다.

선관위 기록물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 이후 1988년 13대 총선부터 최근까지 모두 10번(보궐선거 2번 포함)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수진영 후보가 7차례 승리하고, 3차례는 진보진영 후보가 당선됐다.

특히 최근 두 차례 선거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연거푸 당선되면서 표심이 진보 쪽으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다.

정 총리가 당선되기 이전에도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굵직한 정치인들이 종로를 거쳤기 때문에 여의도에서는 '정치1번지'로 부른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중앙 일간지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달 26~28일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차기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낙연 전 총리는 32.2%의 높은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윤석열 검찰총장(10.8%), 3위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10.1%)였다.

이 전 총리는 만 18세 이상 전 연령대에



서울 종로구 출마를 공식화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남동 한 아파트에 마련한 전셋집 이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 전 총리는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지역 주민 인사 등 사전 선거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 뉴스1

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는데, 특히 40대 지지율이 43.8%로 높았으며, 보수적 성향이 강한 60세 이상에서도 28.6%를 얻었다.

이 조사는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됐으며, 응답률은 10.1%,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경석 기자

'학교법인 한전공대' 인가 또 보류...2022년 개교 '빨간불'?

교육부가 '학교법인 한전공대' 인가 결정을 또다시 보류하면서 2022년 3월 대학 개교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교육부는 지난 달 31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열어 한전이 신청한 학교법인 한전공대 인가여부를 논의했으나 보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한전 측에 또다시 법인 인가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오는 2월20일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추가로 요구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0일 제8차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학교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심의했으나 '계속 심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보완을 요구하면서 한전공대의 2022년 3월 개교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하는 '범나주시민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20일 다시 논의키로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데...서둘러 인가해야"

지원위원회' 여성구 부위원장은 2일 "2022년 3월 개교까지는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교육부에서 신속하게 인가를 처리를 해야 했다"며 "대통령 공약

사항이자 국정과제인 한전공대 설립이 계속 늦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애가 탄다"고 말했다.

여 부위원장은 이어 "지난해 12월 심의서 보완서류를 다 제출했을 텐데 또다시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교육부가 어떤 이유로 인가보류 결정을 내린지는 모르지만 2022년 개교를 위해서는 서둘러 법인 인가를 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전 내부에서도 교육부가 또다시 보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한전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아직 공식 통보를 받은 건 없고 인가보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만 알고 있다"며 "교육부로부터 보완서류 등과 관련해 공식 통보가 오면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법인 설립 절차와는 별개로 캠퍼스 조성 등 2022년 대학 개교를 위한 나머지 절차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한전공대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 특화 공과대학을 목표로 한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컨트리클럽 일원 40만㎡ 부지에 학생 1000명(대학

원 600명·학부 400명) 규모로 설립 예정이며 연구소 및 클러스터는 인근 농성지 등 80만㎡ 부지에 조성된다.

'에너지공학부'의 공학계열 단일학부만 개설돼 대학과 대학원 모두 단일학부로 학생을 선발한다.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와 대형 연구시설도 함께 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된다. 특히 한전은 지자체와 함께 첨단연구시설인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나주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전공대가 예정대로 2022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며 "정부도 빛가람혁신도시를 에너지밸리로 특화시키고, 에너지밸리가 차세대 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서 성장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게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